

## 트럼프 시대 기업 생존법은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미국 대선결과에 실망이 큰 반응이다. 그러나 이념적 가치만 봐서는 안 되고 트럼프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야 한다.

사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관련해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많았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으로 우리 대기업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의 생산이 미국으로 가야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심은 일본 호주 인도였다. 일본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주도성이 감소하고 다양한 피해를 봐야했다.

남북관계도 현재까지 악화되어 긴장이 심화됐다. 결과적으로 평화경제는 멀어지고 대중 무역 및 경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점점 커지고 이는 다시 국내 경제 침체로 연결되었다.

트럼프 당선은 미국인들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경제실패에 대한 실망과 전쟁에 대한 반대 정서가 주요 요인이었다

고 한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이 소강되는 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큰 틀에서 볼 때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부정적 요소와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라는 긍정적 요소가 혼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 산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편적 관세를 더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 우대로 우리 기업의 수출제품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60% 보편적 관세 부과를 실현할 수 있다. 중국 보복 관세 강화의 경우는 반대로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산업별로 보면 조선, 건설 산업의 일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LNG LPG 운반선 수출증가 등이 예상된다. 반도체 기업의 불확실성은 크고 자동차 이차전지는 축소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전통 에너지를 중시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이 약화되고 미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도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FTA 협정 개정과 한국 농식품 기업 관세 부담 가중도 큰 문제다.

광주 전남북의 산업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떤가?

미국의 AI 연구개발과 산업지원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미국이 자국 중심으

로 AI 산업을 강화하는데 우리 AI 기업의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미국 AI 생태계 진입을 도모하면 오히려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따라서 구글 엔비디아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AI 생태계와 광주 AI 협력 확대를 통해 광주 인공지능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하다.

완성차의 미국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 자동차 산업은 일단 수출물량 감소 우려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동차와 이차전지 대기업의 시장 다변화로 유럽시장 적극 공략이 이뤄져야 하고 GGM 캐스퍼의 유럽진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율차 부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이 또한 미국 자율차 시장 생태계에 적극 결합을 도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호남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트럼프의 재생에너지 후퇴 정책이 RE100 기업유치를 추진하는 호남 추세와 맞지는 않으나 대중국 견제로 오히려 우리 배터리 ESS가 유리해 질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산업 추세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에너지 생산설비와 틈새 에너지 기술시장을 더 파고들어야 한다.

농식품분야의 K-푸드 혁신도 시급하다.

미 트럼프정부시대의 생존법은 간단하다. 주고 받기를 잘하는 것, 장사꾼에게는 장사의 지혜로 대응하는 것이다.

기고 | 광미아 광주 남구청 도서관과장

## ‘슬세권’ 작은도서관 통해 남구민께 독서의 즐거움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식주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소위 문화 ‘슬세권’이 뜨고 있다. 슬리퍼+세권을 합친 의미로 슬리퍼를 신고 주변 여가·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권역을 말한다. 우리에게 문화시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익숙한 곳이 도서관, 영화관 등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구는 구민이 삶의 다양한 시·공간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밤에도 주말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집 앞 도서관’ 18개소를 운영해 문화 슬세권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남구민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은도서관은 이름 그대로 구립도서관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규모와 장소 수는 작지만 남구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어느 곳이든 지역 내 모든 공공도서관이 소장한 책이나 자료를 상호 대차해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내가 원하는 자료를 내 집 앞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이들을 데리고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요즘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에게 문화 체험과 함께 접근성까지 좋은 도서관은 그야말로 안성맞춤의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작은도서관은 슬세권에 특화돼 있다. 구립도서관과 달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책을 보고 잠깐씩의 대화도 할 수 있어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인기가 많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독서하고 공부하는 도서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경우 산책하다 들르고, 일반 성인의 경우 약속시간이 남아 들르고,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 또는 학원시간 틈새에 부모와 함께 자료를 찾아 읽기 위해 들르기도 하는 언제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된 것이다.

이렇듯 구립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이 모든 세대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문화·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몇 년 전부터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남구는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야간

및 주말개관 요구를 적극 수용,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남구 관내의 모든 공립 지역작은도서관을 이용시간을 확대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평일 월·화·목·금 4일 동안 오후 9시 또는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구립도서관의 경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립작은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도서관의 야간 및 주말개관 운영이 벌써 9개월 째를 맞이하며 순항하고 있다.

구립도서관 4개소를 비롯해 작은도서관 14개소에서도 야간과 주말에 불이 켜지면서, 주민의 일상 속에서 자주 쉽게 접근 가능한 편의시설이 된 것이다.

남구는 단순히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린 것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구립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성인,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중에 있는데 특히 4월 도서관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4·11월에는 매달 야간에 인문학 강연을 운영중이며,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말과 야간에도 직장인들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동아리를 운영 중이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독서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때보다 뜨겁다. 특히 책을 멀리했던 2030세대에게 ‘텍스트 힙’이 유행하면서 독서가 취미로 급부상하고 있는 요즘이다.

텍스트 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TEXT)와 ‘멋있고 개성있는’을 뜻하는 ‘힙(Hip)’을 합친 글자다. 이렇듯 사회적 흐름이 독서자체를 힙(hip)한 활동으로 인식하면서 SNS에 ‘독서하는 나’를 드러내고 본인이 읽은 책과 독서하는 공간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남구는 도서관을 독서하는 공간이자 언제나 들를 수 있는 문화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독자투고

요즘 공유 자전거, 킥보드를 이용할 때나 출입 등록, 결제 등에 QR코드가 널리 쓰이면서 이것을 이용한 쿼싱 사기가 부쩍 늘고 있다.

‘쿼싱’이란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QR코드를 스캔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셜결제 유도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허위로 발급된 주차위반 안내문을 부착하고 요금을 납부하도록 쿼싱을 유도하는 QR코드가 그려져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한다.

QR코드 이용한 ‘쿼싱’ 사기를 막으려면



이러한 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처럼 공공장소에 공개된 QR코드를 스캔할 때는 덧붙여진 스티커는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무심코 QR코드를 촬영해 인터넷 링크에 접속했다라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앱 설치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쿼싱이 의심되는 QR코드를 발견

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사기전화지킴이(경찰청·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이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민간 차원의 대책도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한술 <여수경찰 여문파출소 순경>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